

중국무술 미종권(迷宗拳) 무술가 곽원갑(霍元甲)에 관한 연구 - 정무체조회(精武體操會)를 중심으로 -

ZHOU WEINAN(경희대학교 박사과정) · 조성균*(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미종권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원갑의 생애사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써 중국무술의 근대적 발전과 이를 통한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곽원갑과 정무체조회의 공헌은 무술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미종권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원갑의 생애와 정무체조회의 설립과정에 관한 고찰하였다. 중국 현재의 선행연구와 1919년에 정무체조회의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진철생이 편집한 <정무본기>를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종권은 건가시기 연간에 손통이라는 사람에 의해 전승이 시작되었으며, 곽씨 미종권은 정해현에서 곽옥무를 대표로 곽씨 미종권을 형성하였다. 곽원갑은 아버지 곽은제를 통하여 10여년을 거쳐 정통의 미종권을 습득하였다. 둘째, 곽원갑은 지우인 농경손을 만나게 되어 지우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족의 생사존망(生死存亡)을 위해 애국정절하게 되었다. 또한 곽원갑은 중국인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외국인에 도전하여 명성을 날리게 되었으며 무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다. 셋째, 곽원갑과 정무체육회는 애이중화, 강국강민을 정무영훈으로 삼았으며, 애국, 수신, 정의, 조인을 주장으로 하였다. 또한 체, 지, 덕 삼육과 지, 인, 용 삼덕을 주지로 선택했으며, “不許以我之拳頭加在同胞身上(불호이아지권두가재동포신상).”를 명문으로 규정을 나의 주먹으로 동포에게 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주제어 : 정무체조회, 곽원갑, 미종권, 중국무술

*chosungkyun@kh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 무술은 전쟁을 멈춰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인류가 만든 문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술은 인간, 자연, 사회의 객관적인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통적인 교화방식(教化方式) 중 하나이다(百度百科, 2020).

중국 춘추(春秋) 시대 때, 역사책인 『좌전(左传)』에 의하면 지과위무(止戈爲武)*는 전쟁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무(武)라고 한다. 중국무술은 규칙에 제한 없이 자연적으로 깨닫고 인식하는 것으로, 양연결합(养练结合), 내외합일(内外合一), 무도합일(武道合一), 형신통일(形神統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기예와 내재적인 면을 중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精), 신(神), 의(意), 기(气), 공(功)을 바탕으로 하여 양생(공법), 예술(체계무술), 유희의 상호 영향을 받아 성장했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독특한 표현방식의 전통무술로서 환경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됨으로 하나의 기술로 단정할 수 없다(中国武术, 2020; 왕용, 2019).

원시시대를 비롯하여 신석기 시대부터 하(夏), 상(商), 주(周), 진(秦), 한(漢), 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 수(隋), 당(唐), 송(宋), 남송(南宋), 원(元), 명(明), 청(淸), 중화민국(中華民國)을 거쳐 오늘날에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에 이르게 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夏), 상(商), 주(周)는 사예(射藝), 각력(角力), 수박(手搏)으로 등장했고, 진(秦), 한(漢)은 각저(角抵), 무예(武藝), 수격(手格)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는 대상복(大相扑), 권

* ‘무(武)’는 그칠(멈출) ‘지(止)’와 창 ‘과(戈)’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서, 그 의미는 싸움을 그치게 하는 데 있다. 즉, 무력(武力)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선공(宣公)十二年

법(拳法), 강무(講武)로 나타났고, 수(隋), 당(唐)은 권첩(拳捷), 시복(試扑)으로 등장했으며, 송(宋), 원(元)은 솔교(摔跤), 타두자(打套子)로 나타났다. 명(明), 청(淸)은 무당파(武當派)의 내가권(內家拳)과 소림파(少林派)의 외가권(外家拳)의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내가권과 외가권의 개념은 유지되고 있다(十八般兵器, 2020; 박귀순, 최종균, 2018; 中国武术, 2018).

1840년 중국에서는 아편전쟁(鴉片戰爭)이 발발하였고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아편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곳곳에서는 ‘동방의 병자’라는 뜻의 동아병부(東亞病夫)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열강의 침략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아편전쟁을 배경으로 미종권을 수련했던 곽원갑(霍元甲:1869-1910)은 “무술로 나라를 구한다”라는 이념을 강조하여 시대에 맞춘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상해(上海)에서 정무체조회를 창립하였다. 중국무술은 자고이래(自古以來), 대대전승(代代傳承)*, 전남불전녀(傳男不傳女)**, 불수외성인(不收外姓人)***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곽원갑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규(家規)를 타파하고 유진성(劉振聲)을 첫째자로 받아들였으며, 미종권을 전승하기 위해서 중국의 첫 번째 무술체육학교 정무체조회를 창립하였다(王磊, 2017).

정무체조회는 1909년에 곽원갑이 무술의 수련을 목적으로 창립한 무술체육학교이며 중국근대체육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깊은 민간체육단체이다.

중국 근대화 이후 대표적인 무술가인 곽원갑은 무술학교를 창립하여 미종권을 전승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세계적으로 보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미종권과 무술학교에 관한 사상과 철학에 관해 탐구해 보는 것은 현대 무술과 관련한 전공자들이 무술에 대한 수련 및 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적 의의가 있다. 한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근대 대표적인 무술가인 곽원갑과 그의 정무체조회에 대한 무술발전의 공헌만 간략하게 기술하였다(가오페, 손기환, 2018; 陸宇榕, 2016; 유경철, 2014).

* 가문의 구성원에게만 전수한다.

** 남자에게만 전수한다.

*** 성이 다른 가문 밖의 사람에게는 전수하지 않는다.

곽원갑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 하나 곽원갑의 생애에 대해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정무체조회 창립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존재하나 그마저도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곽원갑의 생애 중에서도 정무체조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과 정무체조회의 역할을 파악하여 중국무술이 발전함에 있어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목적

본 연구는 미종권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원갑의 생애사에 관해 고찰해 봄으로서 중국무술의 근대적 발전과 이를 통한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곽원갑과 정무체조회의 공헌은 무술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미종권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곽원갑의 생애와 정무체조회의 설립과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그 당시 시대의 배경에서 무술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는 새로운 연구주제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문헌을 통해 기술된 자료를 정리해서 요약과 해석을 내릴 때 적합한 방법으로(성태제, 시기자, 2007)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연구수행을 하기 전에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개관하여 이루어진 2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 및 선행연구물을 검토하는 분석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 곽원갑과 정무체조회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

에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 학계에서 발표된 연관 주제의 학위·학술논문과 근대 이후 출간된 저서, 잡지, 신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근대 1919년에 정무체조회의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진철생(陳鐵笙)이 편집한 <정무본기(精武本紀)>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정무본기는 중국 중화민국 시기에 정무체조회가 출판된 무술 자료로써 정무체조회의 발전역사와 무술발전을 기재하였으며 그 당시의 무술 활동과 발전을 극대 촉진하여 오늘날의 무술 연구에게도 큰 참고할 가치가 있는 무술 문헌이다(科普行, 2021).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중국에 현존하는 자료 중 <정무본기>는 곽원갑과 정무관의 설립과정에 대한 자료로서 신뢰성을 높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Ⅲ. 곽원갑의 미종권 습득 과정

미종권(迷踪拳)은 미종예(迷踪藝), 연청권(燕靑拳)으로도 불리며, 중국 전통 무술 중 대표적인 권종(拳種)으로 동작이 민첩하고 스텝이 간결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법변환(身法變幻)을 강조하는 무술로 변화막측(變化莫測), 공방유서(攻防有序)의 무술종목이다(王磊, 2017).

미종권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종권은 청대(淸代) 건가(乾嘉)시대* 연간에 산둥대악(山東岱岳)인 손통(孫通)이라는 사람에 의해 전승이 시작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俞樹林, 2016). 손통부터 시작되어 연청권의 전승은 5개 유파로 분류되었으며, 그중에 동광현(東光縣, 현 天津市)의 곽옥무(霍旭武) 대표로 하는 곽씨(霍氏) 미종권은 곽은제(霍恩第)가 수련하여 아들인 곽원경(霍元卿), 곽원갑(霍元甲), 곽원동(霍元棟)에

* 청나라 때는 황제의 이름으로 시기를 나눈다. 건가시기는 황제 건륭(乾隆 1736-1796)과 가경(嘉慶 1796-1820)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게 전승하였다. 손통이 미종권을 접하게 된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손통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좋아하여 장선사(張先師)를 따라 철퇴공(鐵腿功)을 습득하였다. 그 이후 툼탕강호(闖蕩江湖)*를 시작하고 많은 명사대가(名師大家)를 방문하여 각가(各家)의 권술(拳術)을 배우게 되었다. 손통은 중년에 하남숭산(河南嵩山) 소림사에서 수십 년 동안 무술을 배웠으며 권술, 기계(器械)만 정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나술(擒拿術), 점혈수(點穴術)도 우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통을 ‘만능손통’, ‘철퇴손통’ 이라고 존칭하였다. 청(淸)나라 초반기 사람들의 반청복명(反淸復明) 사상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였고, 손통은 그와 의견이 다른 후배와 다툼 끝에 그를 죽음에 이르게 되어 동북(東北)으로 피신했다. 그는 피신하는 도중에 청현(淸縣)과 정해현(淸海縣)에서 사람들에게 권술(미종권)을 가르쳤다(王磊, 2017; 俞树林, 2016; 郭会仙, 2011). 손통은 이러한 사연을 거쳐 미종권을 전파하였고, 정해현에서 곽옥무(霍旭武)가 손통으로부터 전수받은 곽씨(霍氏) 미종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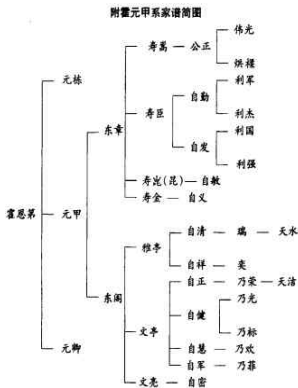


그림 1. 곽원갑의 가보

자료출처: 正说霍元甲:
真实的故事传奇的人生, 2006.



그림 2. 어린 곽원갑과 그의 부모.

자료출처: 历史上真实的霍元甲
罕见照片曝光. 2013.

*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주름잡다”라는 과장이 섞인 표현이다.

곽원갑의 아버지인 곽은제는 미종권의 제6대(第六代) 전인으로 동북객상(東北客商)에서 상인들을 보호해주는 유명한 표사(鏢師)로서 생활 하였다. 곽원갑은 곽은제의 둘째 아들로써 어린 시절부터 몸이 몹시 약했기 때문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걱정한 가족들은 곽원갑이 무술을 배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霍家九虎一隻羊，羊兒不讓進虎場。弟兄練功他長嘆，砍柴挑水一邊忙(곽가구호일호양, 양아불양진호장 제형연공타장탄, 감시도수일변망).” 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곽씨 가족 중 형제들이 무술을 수련하고 곽원갑만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곽원갑은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남몰래 미종권을 배웠다. 1890년 한 무사(武師)*는 곽원경에게 무술 교류를 제안하였고 대련을 했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반면, 곽원갑은 무척 수월하게 승리하자 곽은제가 매우 놀랐다는 일화가 있다. 중국의 타련합일(打練合一)**에서 전통무술은 스승을 통해 배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곽원갑은 스승 없이 혼자 미종권을 습득하여 뛰어난 무술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로 곽원갑은 곽은제에게 미종권을 전수받게 되었다(楊祥奎, 呂廣臣, 2008).

곽원갑은 이러한 무술세가(武術世家)의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곽원갑만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곽원갑은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남몰래 미종권을 배웠다. 어릴 때부터 정종(正宗)*** 미종권을 배워 일대명가(一代名家) 곽원갑은 미종권을 많은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초를 이때부터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IV. 곽원갑의 애국정절(愛國情節)과 정무체조회의 설립

* 무술(武術)이 뛰어난 사람.

** 무술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습득한 훈련이 실제 겨루기에 사용된다.

*** 원조의 정통(正統)을 이어받은 종파.

1895년 연말 광원갑은 성내로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통행료를 달라고 하는 불량배를 만나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제압하였고 이 사건을 통해 광원갑은 인생의 지우(摯友)인 농경손(農勁蓀)을 만나게 되었다. 농경손은 일본 유학자 출신으로 중국 신해혁명(辛亥革命) 시기에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의 조직원이었다. 손중산(孫中山)에게 임무를 받아 천진(天津)에서 약재 구매를 위장으로 하여 혁명 세력을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광원갑은 그중 한 명이었다(楊祥全, 呂廣臣, 2008).

광원갑은 1896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진에 있는 농경손의 약방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원갑은 농경손의 혁명사상(革命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또한, 광원갑이 살았던 시절에는 아편전쟁(鴉片戰爭), 갑오전쟁(甲午戰爭), 팔국연군(八國聯軍) 등 수차례 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 정부는 땅을 떼어주고 평화를 구하였고 백성들은 고통이 심해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광원갑은 중화민족의 생사존망(生死存亡)*을 위해 애국심을 생기게 되었다. 같은 해 산둥 표국(鏢局) 출신 유진성(劉振聲)은 광원갑의 문하로 입문하기 위해 산둥에서 천진까지 왔다. 광원갑은 광원갑은 중국민족의 강인함과 결속력을 위해 미종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환으로 유진성을 첫째자로 삼았으면서 미종권이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되었다(阮坤, 2014).

1901년 한 러시아 장사가 천진의 극장에서 기예를 팔아 전단지에 “打遍中國無敵手，讓“東亞病夫”們見識見識，開開眼界(타편중국무적수, 양 “동아병부” 문견식견식, 개개안계)” 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이는 “모든 중국인들은 적수가 되지 못하니, 동아시아의 병자들에게 견문을 넓혀주도록 하겠다.” 한다. 광원갑은 이 전단지를 보고 유진성을 데리고 러시아 장사를 찾아가 대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장사는 광원갑과의 대결이 두려워 거절하였으며, 다음날 신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천진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다. 또한, 1909년 영국 장사 오피음(奧皮音)은 신문에서 자화자찬(自畫自讚)하고, 중국인을 모욕하며 상해장원(上海張園)에서 중국인과 대결하

* 죽느냐 사느냐의 중대한 문제.

기 위해 무대를 만들었다. 당시 상해에서는 그와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계 유력자인 진공철(陳公哲)은 광원갑을 상해까지 초대했다. 광원갑과 오피옴의 대결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술교의 형식으로 대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시험 당일 오피옴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광원갑과 제자 유진성은 현장에 구경 왔던 사람들과 대결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楊曉軍, 庄長寬, 2013; 楊祥全, 呂廣臣, 2008; 肖波, 2006).

이때 이후로 광원갑과 그의 미종권은 상해에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으며(黎俊忻, 2015), “滬人多知元甲之武功功能, 若不為之流傳, 殊為可惜(호인다지원갑지무기공능, 야불지위지유전, 수위가석)” 라는 말처럼 “상해사람들이 광원갑의 무술을 인정하였고 이 무술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아쉬울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1909년 6월에 광원갑은 무술을 배울 사람을 모으기 위해 광원갑의 명분으로 <시보(時報)>* 에서 모집 하였으며 상해 무술계(武術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다. 광원갑은 교학을 담당하였고 제자 유진성은 이를 보조하며 운영하였다. 정무체조회는 광원갑의 미종권을 사회에 공개하여 대규모로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첫 번째 민간 체육조직이었다(阮坤, 2014).

1910년 9월 14일, 광원갑은 각혈병(咯血病)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만, 정무체조회의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으며 광원갑의 제자는 정무체조회의 이름을 정무체육회(精武體育會)로 변경하였다. “運用武術以為國民體育, 一則寓拳術於體育, 一則移搏擊術於養生, 武術前途方能偉大(운용무술이위국민체육, 일즉우권술어체육, 일즉이박격어양생, 무술전도방능위대)” 라는 말은 “무술을 국민체육으로 만들어 권술을 체육으로 만들어야하고 격투술을 양생(養生)으로 해야 무술의 나아가는 방향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처럼 광원갑의 제자들은 스스로 무술과 체육을 융합 관계로 인지하여, 무술과 체육의 융합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楊祥全, 2018; 楊祥全, 呂廣臣,

* 1904년 6월 12일에 중국 상해에서 간행된 중문신문지이다. 청나라와 민국시기 때 중국근대사에서 영향력이 깊은 전문 일보이다.

2008).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원갑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다. 陈天日(2007) 연구에 의하면 광원갑의 애국정절이 현재까지도 현대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정무체조회는 캐나다, 스위스,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다수의 나라에 전파되어 총 43개의 체육관의 개설과 40여만 명의 회원이 생겼다.



그림 3. 상해정무회 최초의 회소.
자료출처: 《精武本紀》 第9页.



그림 4. 광원갑 1898년 기념촬영.
자료출처: 关于霍元甲的罕见照片. 2018.

V. 광원갑의 사상과 정무체육회의 정무정신

미종권은 중국 화북(華北)과 서북(西北) 지역에서 시작한 무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전 형태의 무술로 발전되었다. 광원갑은 아버지 광은제에게 미종권을 배움으로 각종 무술(各家武術)을 융합하여 미종권을 확장시켰다. 광원갑은 대대전승(代代傳承)의 개념을 깨고 미종권과 중국 무술을 동포에게 전

파하기 위해 정무체조회를 창립하였다(王磊, 2017).

1910~1915년 당시 신보(申報)신문에서는 곽원갑 사후 정무체조회에서 정무체육회로 개칭된 정무체육회의 창립과 정무체육회 분교의 창립에 대한 기사가 있었으며, 1916년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 시기에 진독수(陳獨秀)가 발간한 청년년(新青年) 잡지의 전신(前身)인 청년잡지(青年雜誌)에서 “대력사곽원갑전(大力士霍元甲傳)”과 “술정무체육회사(述精武體育會事)” 곽원갑 생애에 대한 문장을 등재하였다(中國精武體操學校運動大會告白, 1910; 精武體操會設立分會, 1915; 蕭汝霖, 1916).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 정무체육회를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정무체육회의 정신과 곽원갑의 행적으로 사람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정무체육회의 전성기 때, 중국 남쪽 9개성 총 37개분관까지 달성하였고(馬廉禎, 2011) 해외에서는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2개의 분관이 창립하였다(毛國富, 2006). 곽원갑이 창립한 정무체육회는 큰 영향과 무술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다.

1910년 곽원갑과 무술계 친구들은 무술을 발달시키고 동아병부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해 상해에서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으며, 정무체조회의 설립 공고에서 “國民欲抗辱，必先自強。願海內同胞抖擻精神，加入此道。強健體魄，使吾之中華大地，再現勃勃生機，舉國上下，皆成健兒。若此，民族必有希望，中國必將振興(국민욕강욕, 필선자강, 원해내동포두수정신, 가입차도, 강건체백, 사아지중화대지, 재현발발생기, 거국상하, 개성건아. 약차, 민족필유희망, 중국필장진흥)”이라고 공표하였다. 이는 “국민이 치욕을 씻어내려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국내 동포들이 정신 차려 체조회를 가입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키우고 중화를 다시 생기 있게 만들자. 이렇다면 우리 민족의 희망을 기지고 중국은 반드시 부흥할 것이다.”라는 의미이다(于秋生, 于鴻雁, 李宇树, 張霽, 2011). 이처럼 곽원갑은 민족과 나라의 위난의 시기에 정무정신을 전파하여 국민의 애국 열정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

중국 무술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문파간의 다르다는 견해가 존재하여, 문파간 서로 무술의 전승은 대대전승(代代傳承), 전남불전녀(傳男不傳女), 불수의 성인(不收外姓人) 되어 있었다. 하지만 곽원갑은 나라의 위난 시기에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술과 체육을 융합하여 광원갑은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다.

1910년 광원갑이 사망한 후에 정무체육회는 동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체육 연구 뿐만 아니라 무술을 제창하여 “강건한 국민(强健之國民)”이라는 종지를 내세웠다. 정무체육회 “강신강국(强身强國)”의 종지는 중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1919년 정무체육회 창립 10주년에 국부 손중산(孫中山)은 직접 “상무정신(尙武精神)”이라는 글자를 친서하여 정무체육회에 증여하면서 높게 평가하였다(毛国富, 2006; 陈铁笙, 1919).

광원갑의 정무정신은 사람의 건강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건강한 정신을 격려하고 몸을 단련해 신심건강(身心健康)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체역행(身體力行)하여 정의감과 예술로 사회의 악당과 외국의 적수를 물리치며 중화를 “동아병부”로 모욕한 적대세력을 강력하게 척결하였다. 이와 같은 광원갑의 의협심은 그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많은 칭찬을 받았으며 이는 당시 사회에 중요한 정신이었다. 광원갑의 이러한 정신은 정무체육회에도 전수되어 이러한 사상을 중심으로 체육관이 설립되었다.

정무체육회는 애아중화(愛我中華), 강국강민(强國强民)을 정무영혼(精武靈魂)으로 삼았으며, 애국(愛國), 수신(修身), 정의(正義), 조인(助人)을 주장하였다. 또한 체(體), 지(智), 덕(德) 삼육(三育)과 지(智), 인(仁), 용(勇) 삼덕(三德)을 주지로 선택했으며, “不許以我之拳頭加在同胞身上(불호이아지권두가재동포신상)”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나의 힘을 동포에게 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阮坤, 2014; 陈铁笙, 1919).

정무체육회에서는 광원갑의 사진을 걸어 놓고 정무원조(精武元祖)로 떠받들어 상무건신(尙武健身)으로 중국을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무체육회 회기는 빨간색, 노란색, 남색 세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인, 지, 용 삼육을 뜻하며 중국의 염황자손(炎黃子孫)들이 이 삼육으로 수신(修身)하면 중국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정무체육회 회장은 옛날 전쟁의 방패와 흡사하며 건불가궤(堅不可摧)*라는 의미가 있다. 엄격한

규율과 도덕수양을 중시하며 정무회는 회원 모두 강신건국(強身建國)하여 습득한 무술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모욕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을 지니고 있다(陈天日, 2007).

당시 전쟁 배경에서의 곽원갑의 사상은 상무건신(尙武健身)을 근본이라 볼 수 있으며, 정무체육회는 강국강민(強國強民), 삼육(三育), 삼덕(三德)을 강조하여 제자들을 지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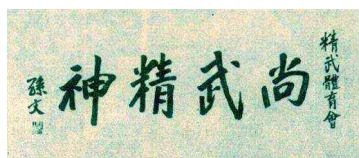


그림 5. 1919년 손중산 칠필
자료출처: 《精武本紀》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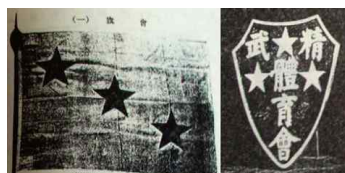


그림 6. 정무체육정신
태표적인 회기와 휘장
자료출처: 《精武本紀》

Ⅵ. 곽원갑의 무술사상과 현대 무술의 의의

1. 미종권에 대한 새로운 개선

미종권은 중국 화북(華北)과 서북(西北) 지역에서 유행하는 무술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전 무술이 되었다. 곽원갑은 아버지에게 정종 미종권을 배워 개조하였으며, 각가무술(各家武術)을 융합하여 미종권을 확장 시켰다. 곽원갑이 개조한 미종권은 소림(少林), 팔괘(八卦), 장권(長拳), 태극(太極), 형의권(形意拳), 당랑권(螳螂拳) 등 무술 권법과 곽가권(霍家拳)의 금나술(擒拿術), 단타(短打), 곽가도(霍家刀) 등 기예를 융합하여 자기의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하

* 견고해서 부수기 어렵다.

였다. 미종권은 기격성(技擊性)이 강하고, 권법이 고풍스러우며 명쾌하여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개조한 미종권은 변덕스럽고 몸놀림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하체와 스텝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겉모습을 봤을 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배우기가 어려우며 광원갑 본인도 장기간 열심히 수련을 통하여 미종권의 기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다(阮坤, 2014; 陈天日, 2007).

또한 중국 화동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의 현직 교수인 仲富兰(2020)는 정무체육회의 무술은 황하유역, 창장유역, 주장유역 등의 각종 문파의 무술을 융합하여 황하유역만해도 독습권법(獨習拳法)의 종류는 69개, 대련권법의 종류는 19개, 독습병기(獨習兵器)의 종류는 36개, 대련병기의 종류는 36개 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광원갑은 정통 미종권을 각가무술과 융합하여 개조하였으며 미종권 무술에게 새로운 실용성을 증가하였다. 광원갑은 무술의 정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해 좋은 점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광원갑은 미종권에 대한 새로운 개선에 있어 무술의 전승과 발전에 대한 큰 의미와 도움을 보일 수 있다.

2. 무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물은 없다. 역사 발전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혁신을 일궈야 한다. 무술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자신 발전의 법칙을 지킴으로 그 법칙에 따라 상응한 개혁을 해야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이끌어줘야 한다.

청(淸)나라 때의 무술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문파(門派)의 편견이 많으며 파벌의 보수적인 무술 사상은 무술의 요구를 방해하였다. 광원갑은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민간 습속에서 나온 스트레스를 다 소화하여 전통적인 문파의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무술을 만들었다. 이는 근대화 무술에서 새로운 발전이고 중대한 돌파이며 근대 무술의 반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3. 정무정신의 전파와 발전

중국이 반식민지 국가로 물리는 시기에 국민이 체질이 허약하여 모욕을 많이 당한 환경 속에서 중국인들은 “상무(尙武)” 정신이 가장 필요하였다. 콰원갑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인인습무(人人習武), 강국강종(強國強種)의 주장을 추앙하여 무술 군사화와 체육 교육화의 개념을 정의하였다(毛国富, 2006).

장건(張騫, 1917)이 작성한 《중화신무술·권각과(中華新武術·拳腳科)》에서 “夫技击之學，重以自衛以備非常——小效衛人，大效衛國.” 라는 말을 하였고 이는 “무술을 배우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나타날 때 자위하는 것이다. 작게 말하면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크게 말하면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며 이와 콰원갑의 정무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 무술의 발전에 있어 체육과 무술의 학습을 통하여 애국심을 키워 영욕을 느끼고 정확한 가치관과 인생관에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나타난 무술명가(武術名家) 중 대표격인 미종권의 대가 콰원갑의 생애사를 고찰하였으며, 그의 무술 사상과 정무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종권은 건가시기 연간에 손통이라는 사람에 의해 전승이 시작되었으며, 콰씨 미종권은 정해현에서 콰옥무를 대표로 콰씨 미종권을 형성하였다. 콰원갑은 아버지 콰은제를 통하여 10여년을 거쳐 정통의 미종권을 습득하였다.

둘째, 광원갑은 지우인 농경손을 만나게 되어 지우의 영향을 받아 중화민족의 생사존망(生死存亡)을 위해 애국정절하게 되었다. 또한 광원갑은 중국인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외국인에 도전하여 명성을 날리게 되었으며 무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무체조회를 설립하였다.

셋째, 광원갑과 정무체육회는 애아중화, 강국강민을 정무영훈으로 삼았으며, 애국, 수신, 정의, 조인을 주장으로 하였다. 또한 체, 지, 덕 삼육과 지, 인, 용 삼덕을 주지로 선택했으며, “不許以我之拳頭加在同胞身上(불호이야지 권두가제동포신상).” 를 명문으로 규정을 나의 주먹으로 동포에게 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미종권과 정무체육회의 발전과 사상은 현대 무술의 의의와 큰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종권에 대한 혁신은 무술의 전승과 발전에 대한 큰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였다. 또한, 광원갑은 전통 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미종권을 전승하였는데 이는 근대화 무술에서 새로운 발전으로 중대한 돌파이며 근대화 무술의 반전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술은 본래의 형태와 의의를 따르되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뿐더러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결국 무예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무예와 정무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히 현대사회의 발전에 발맞춰 계승하는 것이 무예인들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중국 근대사회를 배경으로 한 무술명가(武術名家) 중 대표적인 미종권의 대가 광원갑과 그의 정무체조회를 고찰하였다. 하지만 중국 내 다른 종파(宗派)의 미종권을 고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향후 다른 종파의 미종권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가오페, 손기환(2018). 중국 드라마를 매체 전환한 연환화 [무술인 곽원갑(武術家霍元甲)의 예술 형식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49-178.
- 박귀순, 최종균(2018). 근대시기 이전 중국무예의 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 20(2), 87-104.
- 상태제, 시기자(2007). **연구방법론**. 서울 : 도서출판 학지사.
- 유경철(2014). 이연걸(李連杰)의 영화 [곽원갑 (霍元甲)] 과 21세기 중국 무술영화의 향방. **중국현대문학**, 69, 185-215.
- 陸宇榕(2016). 文化人類學的 比較를 통한 近代時期 韓中 武藝 傳承形態에 關한 研究 : 武藝의 學校 體育教育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左传》**. 编年体史书.
- 陈天日(2007). 试论霍元甲的精武精神及在传承中华武术文化方面的贡献. **天津市社会主义学院学报**, (2), 46-48.
- 陈铁笙(1919). **《精武本纪》**. 上海精武体育会.
- 晨曲(2006). 正说霍元甲: 真实的故事传奇的人生. 百花文艺出版社.
- 亘火 (2015). 霍元甲: 传奇背后的一代宗师. **中国档案报**, (1).
- 郭会仙(2011). 燕青拳源流考. 硕士学位论文, 上海体育学院.
- 申报(1915). “精武体操会设立分会”. 1915 年 8 月 12 日, 十版四栏.
- 黎俊忻(2015). 从武者到民族英雄——霍元甲形象在二十世纪初的演化. **文化遗产**, (5), 134-145.
- 马廉祯(2011). 民国时期东南亚精武会的盛与衰. **安陽師範學院學報**, 2011(5), 25-30.
- 毛国富(2006). 霍元甲的精武精神及其对现代武术的启示. **广东教育学院学报**, 26(4), 99-102.
- 阮坤(2014). 霍元甲的中国武术精神与贡献. **兰台世界**: 下旬, (2), 97-98.
- 王磊(2017). 当代天津霍氏迷踪艺的传承与发展. **武术研究**, 2(6), 69-72.

- 王新雷(2008). 明清武术对中国武术发展的影响. 搏击: 武术科学, (11), 6-7.
- 肖波(2006). 历史上真实的霍元甲. 文苑, (03B), 71-72.
- 萧汝霖(1916). 大力士霍元甲传. 《青年杂志(正月号)》, 1(5).
- 萧汝霖(1916). 述精武体育会事. 《青年杂志(正月号)》, 1(5).
- 杨祥全(2018). 天津迷踪拳的传承与发展. 中华武术:研究, v.7 ; No.79(07), 7-12.
- 杨祥全, 吕广臣(2008). “精武元祖” 霍元甲考略. 搏击: 武术科学, 5(3), 21-23.
- 于秋生, 于鸿雁, 李宇树, 张霁(2011). 浅谈霍元甲与中国武术精神的传承. 兰台世界: 上半月, (4), 58-59.
- 俞树林(2016). 霍式迷踪拳渊源传承. 2016年北京国际武术与养生文化学术研讨会论文集. 254-261.
- 张骞(1917). 《中华新武术·拳脚科》. 序.
- 张景岩(2006). 不要修改历史——告诉你一个真实的霍元甲. 精武, (4), 14-16.
- 申报(1910). “中国精武体操学校运动大会告白”. 1910年12月30日, 一版一栏
- 杨晓军, 庄长宽(2013). 精武元祖霍元甲对武术的历史贡献. 兰台世界, 34.
- 个人图书馆(2018). 关于霍元甲的罕见照片.
http://www.360doc.com/content/18/0511/23/34331277_753228903.shtml
- 个人图书馆(2013). 历史上真实的霍元甲罕见照片曝光.
http://www.360doc.com/content/13/0217/05/11263728_266056180.shtml
- 科普行, (2021). 《精武本纪》内容介绍.
<http://www.kexing365.com/index.php?homepage=kexing78&file=wiki&itemid=137>
- 維基百科(2020.12.31.). 十八般兵器.
<https://zh.wikipedia.org/zh-tw/%E5%8D%81%E5%85%AB%E8%88%AC%E5%85%B5%E5%99%A8>
- 百度百科(2018.12.08.). 中国武术.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6%AD%A6%E6%9C%AF/1446959?fr=alad>

ABSTRACT

Study targeting Chinese martial art (Labrinthine Boxing) practitioner Huo Yuanjia: A case study with Jingwu Sports Association

Zhou Weinan(Kyung Hee Univ.) · Cho, sung-kyu(Kyung Hee Univ.)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history of Huo Yuanjia,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modernization of Mi Zong Quan. Its purpose is to provide basic data on what kind of effect it has for the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life of Huo Yuanjia,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modernization of Mi Zong Quan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Jing Wu Athletic Association. It was described using the previous research in China and <Jing Wu Ben Ji> edited by Chul-saeng Jin to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Jing Wu Athletic Association's establishment in 1919.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the transmission of Mi Zong Quan was started by a person named Sun Tong in the year of the Gunga period, and Mi Zong Quan was formed by Mr. Huo Yuanjia learned the authentic Mi Zong Quan through his father Huo Endi over 10 years. Second, Huo Yuanjia met Jiun Nong Jinsong, and under the influence of Jiu, she became patriotic for the sake of the survival and death of the Chinese people. In addition, Huo Yuanjia has gained fame by challenging foreigners to avoid insults by the Chinese, and established the Jing Wu Athletic Association to promote martial arts to the world. Third, Huo Yuanjia and Jing Wu Athletic Association made love China and the strongest powerhouse Jeong Moo Young-hoon, and asserted patriotism, reception, justice, and joining. In addition, I chose Che, Ji, Deok Samyuk and Ji, In, and Yong Samdeok as the main chiefs, and the prestigious rule was “不許以我之拳頭加在同胞身上 (Bulhoia Ji-gwon-du-gajae compatriot statue). I taught that I shouldn't.

Key words: Jing Wu Athletic Association, Huo Yuanjia, Mi Zong Quan, Chinese martial art

논문투고일 : 2021.03.30.
심 사 일 : 2021.04.10.
심사완료일 : 2021.04.30.